

보증제한 완화, 자율성 강화 등 소상공인·약자 규제 10건 폐지

서울시, 연초부터 규제철폐 가동
건설·경제·민생 등 63건 과제 발표
지역 보증제한 풀고 신규보증지원
소상공인 영업활동 다양성 부여 등



오세훈 서울시장(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연초 본격적인 작업을 가동한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로 10건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는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54호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골자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에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의 개선내

용이 담겼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 조건도 개선(57호)된다. 앞으로는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이다.

규제철폐안 59호~61호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서울시는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포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한다.

약자를 보듬는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49~77만원 지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이 기준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 '0명'

올해도 '의대증원' 갈등 계속 돼
일부 대학, 개강 4월 말로 미뤄

이번 학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의대생이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양상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개강을 두 달 가량 미뤘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10개 의대에선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4곳 중 1곳의 2025학번인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아무

도 없는 셈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의대에서는 총 852명의 의대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다. 대학별로 ▲강원대 97명 ▲경북대 163명 ▲경상국립대 141명 ▲부산대 162명 ▲전남대 2명 ▲충북대 41명 등으로, 전북대와 제주대는 신입생들이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단, 대부분 대학이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불참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을 전격 연기해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이 늘 수 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는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이현진 기자

정원 못채운 대학 49곳... 82%가 지방대

추가모집에도 학생 총 1120명 미달
지방권 40곳, 경인권 8곳, 서울권 1곳

올해 대학 입시에서 49개 대학에서 추가모집 마감까지 학생 총 112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학생 중 82%인 1050명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은 서울 지역이 75.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 대학은 9대 1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

한 대학은 전체 조사 대상 181곳 중 27%에 해당하는 49곳이었다.

2025학년도 마감직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49곳 중 경북지역이 4곳에서 215명을 선발하지 못해 미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광주 5개대 205명 ▲전남 2개대 165명 ▲전북 3개대 130명 ▲충북 5개대 118명 ▲부산 5개대 104명 ▲강원 3개대 41명 ▲서울 1개대 34명 ▲경남 3개대 34명 ▲경기 7개대 34명 ▲충남 4개대 16명 등이었다. 단, 세종, 울산 지역은 미충원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대 1이었고, 서울권 28개 대학이 75.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인권이 37개 대학에서 48.8대 1, 지방권 86개 대학 9.0대 1을 기록하며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전형 신설, 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대량 발생해 일부 학교들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자원봉사 표어 공모전

교육자원봉사 가치 알릴 것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한 줄 메시지를 찾기 위해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표어(슬로건)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교육자원봉사자, 교직원, 학

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자 이내의 표어(슬로건)와 100자 이내의 설명을 온라인 규약, 네이버폼 또는 이메일(newstartcenter@se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홍보 및 캠페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0 | 해질 / 18:29

3월 4일 (화)
음력 : 2월 5일

수도권 날씨
0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예측): 연천 -3/4, 동두천 -2/5, 파주 -4/4, 가평 -3/2, 서울 0/4, 양평 -2/4, 인천 0/4, 수원 0/3, 용인 0/3, 평택 -1/3,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우크라이나 정권교체 요구 시사...“전쟁 끝낼 지도자 필요”
▲젤렌스키, ‘굴욕 회담’ 후 한발 물러서...“美와 광물협정 서명 준비” /사진 뉴시스

▲英총리,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구입비 16억파운드 제공하겠다”
▲이스라엘, 가자 구호품 반입 차단...1단계 휴전 연장 압박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사업비 갈등...산업부 중재 사설까
▲트럼프, XRP·SOL·ADA 암호화폐 전략 비축 지시...비트코인은 빠져